

## 『金匱要略』과 『傷寒論』의 相似條文에 대한 分析

廉龍河·河基泰·玄東煥·尹相柱·金俊錡·崔達永\*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초록】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仲景의 著述로서 醫方之祖로 인정되어 왔지만, 두 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金匱要略』과 『傷寒論』의 相似條文은 각 책의 10.8%, 11%를 차지할 만큼 많이 있으며 각 조문을 분석한 결과 높은 상동성을 가지는 조문이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책이 서로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들 相似條文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낱말 : 金匱要略, 傷寒論, 相似條文

### I. 서 론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仲景의 著述로서 醫方之祖로 인정되어 왔지만, 두 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sup>1)</sup>. 著者は 『金匱要略』의 原文을 정리하던 중 『傷寒論』과 相似한 조문이 44개나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相似條文의 분석을 통하여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 II. 본 론

#### 1. 研究方法

먼저 『金匱要略』의 條文과 『傷寒論』의 조문을 함께 나열하여 비교하고, 같은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단 兩書의 條文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표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金匱要略』의 조문은 『金匱要略手冊』<sup>2)</sup>과 『金匱要略校注』<sup>3)</sup>를 참고하였다. 條文의 번호는 『金匱要略手冊』을 따랐으며, 원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兩書를 모두 참고하였다. 『傷寒論』의 조문은 『傷寒論手冊』<sup>4)</sup>과 『傷寒論校注』<sup>5)</sup>를 참고하였다. 條文의 번호는 『傷寒論手冊』을 따랐으며, 원문의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傷寒論手冊』을 기준으로 하고 의문나는 것에만 『傷寒論校注』를 참고하였다.

\* 교신저자 : 최달영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우 : 780-714)

Tel : 054-770-2650 Email : cdydkom@dongguk.ac.kr

- 1) 潘澄濂 : 略談『傷寒論』與『金匱要略』之關係, 浙江中醫學院學報 8(4) : 13-16
- 2) 段光周 外 : 金匱要略手冊,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8. 이하 『금계수책』으로 간칭함.
- 3) 何任 主編 :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이하 『금계교주』로 간칭함.
- 4) 張啓基 : 傷寒論手冊, 重慶, 科學技術出版社重慶分社, 1984. 이하 『상한수책』으로 간칭함.
- 5) 劉渡舟 主編 : 傷寒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이하 『상한교주』로 간칭함.

## 2. 條文分析

金匱1-14) 問曰：病有急當救裏救表也，何謂也？

師曰：病，醫下之，續得下利清穀不止，身體疼痛者，急當救裏；後身體疼痛，清便自調者，急當救表也。

傷寒91) 傷寒，醫下之，續得下利清穀不止，身疼痛者，急當救裏；後身疼痛，清便自調者，急當救表，救裏，宜四逆湯；救表，宜桂枝湯。

金匱2-6) 瘡家雖身疼痛，不可發汗，汗出則痊。

傷寒85) 瘡家，雖身疼痛，不可發汗，發汗則瘳。

金匱2-23) 傷寒八九日，風濕相搏，身體疼痛，不能自轉側，不嘔不渴，脈浮虛而澀者，桂枝附子湯主之；若大便堅，小便自利者，去桂加白朮湯主之。

傷寒174) 傷寒八九日，風濕相搏，身體疼痛，不能自轉側，不嘔不渴，脈浮虛而澀者，桂枝附子湯主之。若其人大大便硬，小便自利者，去桂加白朮湯主之。

金匱2-24) 風濕相搏，骨節疼痛掣痛，不得屈伸，近之則痛劇，汗出短氣，小便不利，惡風不欲去衣，或身微腫者，甘草附子湯主之。

傷寒175) 風濕相搏，骨節疼痛，掣痛不得屈伸，近之則痛劇，汗出短氣，小便不利，惡風不欲去衣，或身微腫者，甘草附子湯主之。

金匱8-3) 發汗後，燒針令其汗，針處被寒，核起而赤者，必發奔豚，氣從少腹上至心，灸其核上各一壯，與桂枝加桂湯主之。

傷寒117) 燒針令其汗，針處被寒，核起而赤者，必發奔豚，氣從少腹上衝心者，灸其核上各一壯，與桂枝加桂湯，更加桂二兩。

金匱8-4) 發汗後，臍下悸者，欲作奔豚，茯苓桂枝甘草大棗湯主之。

傷寒65) 發汗後，其人臍下悸者，欲作奔豚，茯苓

桂枝甘草大棗湯主之。

金匱10-14) 腹滿不減，減不足言，當須下之，宜大承氣湯主之。

傷寒255) 腹滿不減，減不足言，當下之，宜大承氣湯。

金匱10-22) 脈數而滑者，實也，此有宿食，下之愈，宜大承氣湯。

傷寒256) 陽明少陽合病，必下利。其脈不負者，為順也。負者，失也，互相剋賊，名為負也。脈滑而數者，有宿食也，當下之，宜大承氣湯。

金匱11-15) 趺陽脈浮而澀，浮則胃氣強，澀則小便數，浮澀相搏，大便則堅，其脾為約，麻子仁丸主之。

傷寒247) 趺陽脈，浮而澀，浮則胃氣強，澀則少便數，浮澀相搏，大便則硬，其脾為約，麻子仁丸主之。

金匱13-1) 厥陰之為病，消渴，氣上衝心，心中疼熱，飢而不欲食，食即吐<sup>6)</sup>，下之不肯止。

傷寒326) 厥陰之為病，消渴，氣上撞心，心中疼熱，飢而不欲食，食則吐蚘，下之，利不止。

金匱13-4) 脈浮，小便不利，微熱消渴者，宜利小便發汗，五苓散主之。

傷寒71) 太陽病，發汗後，大汗出，胃中乾，煩燥不得眠，欲得飲水者，少少與飲之，令胃氣和則愈。若脈浮，小便不利，微熱消渴者，與五苓散主之。

金匱13-5) 渴欲飲水，水入則吐者，名曰水逆，五苓散主之。

傷寒74) 中風發熱，六七日不解而煩，有表裏證，渴欲飲水，水入則吐者，名曰水逆，五苓散主之。

金匱13-9) 淋家不可發汗，發汗則便血。

6) 『금궤수책』 p.40에는 蛔가 있으나, 『금궤교주』 p.136에 의거하여 고쳤다. 『금궤교주』의 校에서는 醫統本과 『傷寒論』에서는 '吐...下有「蚘」字'라고 밝히고 있다.

傷寒84) 淋家, 不可發汗, 發汗必便血.

金匱13-12) 渴欲飲水, 口乾舌燥者, 白虎加人參湯主之.

傷寒222) 若渴欲飲水, 口乾舌燥者, 白虎加人參湯主之.

金匱17-3) 問曰: 病人脈數, 數爲熱, 當消穀引食, 而反吐者, 何也? 師曰: 因發其汗, 令陽微, 膈氣虛, 脈乃數, 數微客熱, 不能消穀, 胃中虛冷故也. 脈弦者, 虛也, 胃氣無餘, 朝食暮吐, 變爲胃反. 寒在于上, 醫反下之, 今脈反弦, 故名曰虛.

傷寒122) 病人脈數, 數爲熱, 當消穀引食, 而反吐者, 此以發汗, 令陽氣微, 膈氣虛, 脈乃數也. 數爲客熱, 不能消穀, 以胃中虛冷, 故吐也.

金匱15-3) 陽明病, 脈遲者, 食難用飽, 飽則發煩頭眩, 小便必難, 此欲作穀疸. 雖下之, 腹滿如故, 所以然者, 脈遲故也.

傷寒195) 陽明病, 脈遲, 食難用飽, 飽則微煩頭眩, 必小便難, 此欲穀瘕. 雖下之, 腹滿如故, 所以然者, 脈遲故也.

金匱16-4) 衄家不可汗, 汗出必額上陷脈緊急, 直視不能眴, 不得眠.

傷寒86) 衄家, 不可發汗, 汗出必額上陷, 脈急緊, 直視不能眴, 不得眠.

金匱16-9) 亡血不可發其表, 汗出即寒慄而振.

傷寒87) 亡血家, 不可發汗, 發汗則寒慄而振.

金匱16-12) 火邪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

傷寒112) 傷寒脈浮, 醫以火迫劫之, 亡陽, 必驚狂, 起臥不安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求逆湯主之.

金匱17-1) 夫嘔家有癰膿, 不可治嘔, 膿盡自愈.

傷寒376) 嘔家, 有癰膿者, 不可治嘔, 膿盡自愈.

金匱17-9) 乾嘔, 吐涎沫, 頭痛者, 吳茱萸湯主之.

傷寒378) 乾嘔, 吐涎沫, 頭痛者, 吳茱萸湯主之.

金匱17-14) 嘔而脈弱, 小便復利, 身有微熱, 見厥者, 難治, 四逆湯主之.

傷寒377) 嘔而脈弱, 小便復利, 身有微熱, 見厥者, 難治, 四逆湯主之.

金匱17-15) 嘔而發熱者, 小柴胡湯主之.

傷寒379) 嘔而發熱者, 小柴胡湯主之.

金匱17-25) 下利脈沈弦者, 下重; 脈大者, 爲未止; 脈微弱數者, 爲欲自止, 雖發熱不死.

傷寒365) 下利, 脈沈弦者, 下重也; 脈大者, 爲未止; 脈微弱數者, 爲欲自止, 雖發熱, 不死.

金匱17-26) 下利手足厥冷, 無脈者, 灸之不溫; 若脈不還, 反微喘者, 死. 少陰負趺陽者, 爲順也.

傷寒362) 下利, 手足厥冷, 無脈者, 灸之, 不溫, 若脈不還, 反微喘者死; 少陰負趺陽者, 爲順也.

金匱17-27) 下利有微熱而渴, 脈微者, 今自愈.

傷寒360) 下利, 有微熱而渴, 脈弱者, 今自愈.

金匱17-28) 下利脈數, 有微熱, 汗出, 今自愈; 設脈緊爲未解.

傷寒361) 下利脈數, 有微熱汗出, 今自愈; 設復緊, 爲未解.

金匱17-29) 下利脈數而渴者, 今自愈; 設不差, 必圜膿血, 以有熱故也.

傷寒367) 下利, 脈數而渴者, 今自愈. 設不差, 必清膿血, 以有熱故也.

金匱17-32) 下利, 寸脈反浮數, 尺中自濇者, 必圜膿血.

傷寒363) 下利, 寸脈反浮數, 尺中自濇者, 必清膿血.

金匱17-33) 下利清穀，不可攻其表，汗出必脹滿。  
傷寒364) 下利清穀，不可攻表，汗出必脹滿。

金匱17-34) 下利脈沈而遲，其人面少赤，身有微熱，下利清穀者，必鬱冒汗出而解，病人必微熱，所以然者，其面戴陽，下虛故也。

傷寒366) 下利，脈沈而遲，其人面少赤，身有微熱，下利清穀者，必鬱冒汗出而解，病人必微厥，所以然者，其面戴陽，下虛故也。

金匱17-35) 下利後脈絕，手足厥冷，暍時脈還，手足溫者生，脈不還者死。

傷寒368) 下利後脈絕，手足厥冷，暍時脈還，手足溫者生，脈不還者死。

金匱17-36) 下利腹脹滿，身體疼痛者，先溫其裏，乃攻其表。溫裏宜四逆湯，攻表宜桂枝湯。

傷寒372) 下利腹脹滿，身體疼痛者，先溫其裏，乃攻其表。溫裏，宜四逆湯；攻表，宜桂枝湯。

金匱17-41) 下利譫語者，有燥屎也，小承氣湯主之。

傷寒374) 下利，譫語者，有燥屎也，宜小承氣湯。

金匱17-42) 下利便膿血者，桃花湯主之。

傷寒306) 少陰病，下利，便膿血者，桃花湯主之。

金匱17-43) 熱利重下者，白頭翁湯主之。

傷寒371) 熱利，下重者，白頭翁湯主之。

金匱17-44) 下利後更煩，按之心下濡者，爲虛煩也，梔子豉湯主之。

傷寒375) 下利後，更煩，按之心下濡者，爲虛煩也，宜梔子豉湯。

金匱17-45) 下利清穀，裏寒外熱，汗出而厥者，通脈四逆湯主之。

傷寒370) 下利清穀，裏寒外熱，汗出而厥者，通脈四逆湯主之。

金匱19-7) 蚘厥者，當吐蚘，令病者靜而復時煩，此爲臟寒，蚘上入膈，故煩，須臾復止，得食而嘔又煩者，蚘聞食臭出，其人常自吐蚘。

金匱19-8) 蚘厥者，烏梅丸主之。

傷寒338) 傷寒脈微而厥，至七八膚冷，其人躁無暫安時者，此爲藏厥，非爲蚘厥也。蚘厥者，其人當吐蚘。今病者靜，而復時煩者，此爲藏寒，蚘上入膈，故煩，須臾復止，得食而嘔又煩者，蚘聞食臭出，其人常自吐蚘。蚘厥者，烏梅丸主之。又主久利。

金匱22-1) 婦人中風，七八日續來寒熱，發作有時，經水適斷，此爲熱入血室，其血必結，故使如瘧狀，發作有時，小柴胡湯主之。

傷寒144) 婦人中風七八日，續得寒熱，發作有時，經水適斷者，此爲熱入血室，其血必結，故使如瘧狀，發作有時，小柴胡湯主之。

金匱22-2) 婦人傷寒發熱，經水適來，晝日明了，暮則譫語，如見鬼狀者，此爲熱入血室，治之無犯胃氣及上二焦，必自愈。

傷寒145) 婦人傷寒，發熱，經水適來，晝日明了，暮則譫語，如見鬼狀者，此爲熱入血室，無犯胃氣及上二焦，必自愈。

金匱22-3) 婦人中風，發熱惡寒，經水適來，得之七八日，熱除脈遲，身涼和，胸脇滿，如結胸狀，譫語者，此爲熱入血室也，當刺期門，隨其實而取之。

傷寒143) 婦人中風，發熱惡寒，經水適來，得之七八日，熱除而脈遲身涼，胸脇下滿如結胸狀，譫語者，此爲熱入血室也，當刺期門，隨其實而瀉之。

金匱22-4) 陽明病，下血譫語者，此爲熱入血室，但頭汗出，當刺期門，隨其實而瀉之，濺然汗出者愈。

傷寒216) 陽明病，下血譫語者，此爲熱入血室，但頭汗出者，刺期門，隨其實而瀉之，濺然汗出則愈。

### Ⅲ. 고 찰

이상에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조문 가운데서 相似한 것을 비교해 보았다. 『金匱要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조문의 수는 모두 44개이지만, 金匱17-7, 17-8條는 傷寒 338조와 동일하므

로 『傷寒論』을 기준으로 하면 43개에 해당한다. 이 숫자는 『傷寒論』 398조<sup>7)</sup> 전체의 약 10.8%에 해당하고, 『金匱要略』 389조<sup>8)</sup>의 약 11.3%에 해당한다.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각 편별로 수록된 相似條文의 수는 각각 다음의 표 1, 2와 같다.

표 1. 『傷寒論』의 각 편별로 본 相似條文의 수

篇名	條文數	相似條文	비율(%)	순위
辨太陽病脈證并治上	30	-	-	-
辨太陽病脈證并治中	97	11	11.3	2
辨太陽病脈證并治下	51	5	9.8	3
辨陽明病脈證并治	84	6	7.1	4
辨少陽病脈證并治	10	-	-	-
辨太陰病脈證并治	8	-	-	-
辨少陰病脈證并治	45	1	2.2	5
辨厥陰病脈證并治	56	20	35.7	1
辨霍亂病脈證并治	10	-	-	-
辨陰陽易差後勞復病脈證并治	7	-	-	-
계	398	43	11.0	

표 2. 『金匱要略』의 각 편별로 본 相似條文의 수

篇名	條文數	相似條文	비율(%)	순위
臟腑經絡先後病脈證	17	1	5.8	9
痙濕喝病脈證	27	3	11.1	7
百合狐惑陰陽毒病脈證治	15	-	-	-
瘧病脈證并治	5	-	-	-
中風歷節病脈證并治	10	-	-	-
血痺虛勞病脈證并治	18	-	-	-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15	-	-	-
奔豚氣病脈證治	4	2	50	1

7) 卷頭に 있는 傷寒例, 辨脈, 平脈, 痙濕喝 諸篇과 卷尾의 可, 不可 편을 제외한 숫자임.

8) 卷末에 추가된 雜療方, 禽獸魚蟲禁忌并治, 果實菜穀禁忌并治의 3편은 제외한 숫자임.

胸痺心痛短氣病脈證治	10	-	-	-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	26	2	7.7	8
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	20	1	5	10
痰飲咳嗽病脈證并治	41	5	12.2	6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	13	-	-	-
水氣病脈證并治	32	1	3.1	11
黃疸病脈證并治	22	-	-	-
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	17	3	17.6	5
嘔吐噦下利病脈證治	47	20	42.5	2
瘡癰腸癰浸淫病脈并治	8	-	-	-
跌蹶手指臂腫轉筋陰狐疝蠅蟲病脈證治	8	2	25	3
婦人妊娠病脈證并治	11	-	-	-
婦人產後病脈證治	11	-	-	-
婦人雜病脈證并治	22	4	18.2	4
계	389	44	11.3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이는 편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傷寒論』에서는 辨厥陰病脈證并治 - 辨太陽病脈證并治中 - 辨太陽病脈證并治下 - 辨陽明病脈證并治 - 辨少陰病脈證并治의 순이며, 『金匱要略』에서는 奔豚氣病脈證治 - 嘔吐噦下利病脈證治 - 跌蹶手指臂腫轉筋陰狐疝蠅蟲病脈證治 - 婦人雜病脈證并治 - 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 -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 - 瘡濕喝病脈證 -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臟腑經絡先後病脈證 - 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 - 水氣病脈證并治의 순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 『傷寒論』의 「辨厥陰病脈證并治」편과 『金匱要略』의 「嘔吐噦下利病脈證治」편은 공통적으로 매우 높은 상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金匱玉函經』에는 「辨厥陰病形證治」와 「辨厥利嘔噦病形證治」를 구분하고 있으며<sup>9)</sup> “厥陰……”으로 시작하는 4개의 조문 이외에는 모두 「辨厥利嘔噦病形證治」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된 ‘厥陰病’의 실질<sup>10)</sup>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문 자체의 비교를 통한 상동성의 정도에 따라서 각 조문을 분류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과 같다.<sup>11)</sup> 분류의 기준은 완전히 서로 동일한 조문을 Grade 4로 잡았고, 조문의 전체 의미와는 큰 관련이 없는 글자의 차이는 Grade 3, 글자도 차이가 나면서 의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Grade 2, 서로 다른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Grade 1으로 잡았다. 조문의 비율은 Grade 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Grade 4, Grade 1, Grade 2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의 동일한 조문으로 볼 수 있는 Grade 3, 4의 비율이 전체의 6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상한론』과 『금궤요략』의 相似條文은 대부분 동일한 起源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9) 張仲景：金匱玉函經，北京，人民衛生出版社，1955，pp.52-55  
 10) 최달영：傷寒論釋講，서울，대성출판사，1995，pp.483-486  
 11) 조문의 수는 『金匱要略』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3. 相同性에 따른 조문의 분류

Grade	조문수	비율(%)
4	11	25
3	17	38.6
2	7	15.9
1	9	20.5

이 외에도 相似條文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할 사항이 있다. 먼저 『傷寒論』 143-145, 216조의 熱入血室證은 『金匱要略』의 22-1,2,3,4條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清代 柯琴은 이 조문을 雜病으로 볼 수도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sup>12)</sup> 또한 『傷寒論』 174, 175조의 '風濕相搏'이나 『傷寒論』 247조의 麻子仁丸證의 경우는 각각 『金匱要略』 2-23, 2-24條, 11-5條에 수록되어 있는데, 두 증상 모두 그 병리기전에 대하여 外感病이 아니라 內傷에 의해서도 발생할수 있음이 제기된 바 있다. 風濕相搏의 경우에 柯琴은 宋本の 卷頭に 첨부된 '痙', '瘧'<sup>13)</sup>과 함께 太陽病篇의 마지막에 附記하고 있으며<sup>14)</sup>, 痙濕瘧의 세 증상은 傷寒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또한 麻子仁丸은 전통적으로 179조의 太陽陽明과 연관되어 설명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기전을 胃熱이 亢盛하여 脾에서 津液을 輸布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6)</sup>. 이는 外感寒邪라는 협의의 傷寒概念을 도입하지 않아도 風濕相搏證과 麻子仁丸證의 病機를 설명할 수 있음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厥陰病脈證并治」篇의 下利, 嘔吐, 噦의 條文들도 대부분 『金匱要略』의 「嘔吐噦下利脈證并治」에 수록되어 있어, 傷寒과 雜病이 서로 표리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

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傷寒論』의 「辨太陽病脈證并治中」 83-87條에 수록된 '不可發汗'의 5조문 가운데 83조 '咽喉乾燥者, 不可發汗'을 제외하면 모두 『金匱要略』의 각 편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사조문들의 존재는 『傷寒論』에 수록된 여러 증상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협의의 傷寒에 얽매이지 않고 雜病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相似條文의 분석을 통하여 『傷寒論』과 『金匱要略』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들어 『金匱要略』 16-12조의 "火邪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는 조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傷寒論』 112조의 "傷寒脈浮, 醫以火迫劫之, 亡陽, 必驚狂, 起臥不安者,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求逆湯主之"과 114條에서 "太陽病, 以火熏之, 不得汗, 其人必躁. 到經不解, 必清血, 名爲火邪" 등의 조문을 인용하여 『金匱要略』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 반대로 『傷寒論』 252-254조의 陽明病의 三急下證과 320-322조의 少陰病의 三急下證 이외에도, 『金匱要略』의 「嘔吐噦下利病脈證治」편에 17-37조 "下利三部脈皆平, 按之心下堅者, 急下之, 宜大承氣湯"과 17-38조 "下利脈遲而滑者, 實也, 利未欲止, 急下之, 宜大承氣湯"이 있는데, 이는 『傷寒論』의 부족함을 『金匱要略』이 보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金匱要略』과 『傷寒論』에는 서로 유사한 조문이 많이 있으며, 이것은 두 책이 서로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음을 시사한다. 또한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이들 相似條文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2) 柯琴: 傷寒論翼, p.159

"其他結胸·藏結·陽結·陰結·瘀熱發黃·熱入血室·譫語如狂等證, 或因傷寒, 或非傷寒, …… 傷寒雜病合論之旨矣."

13) 『상한론』과 『금궤요략』에서는 暈로 되어 있으나, 柯琴은 瘧證으로 표현하였음.

14) 柯琴: 傷寒論注, pp.63-68

15) 太陽主表, 六氣皆得而傷之, 三種故與傷寒不動. 然亦有因於傷寒而見, 證與傷寒相似, 故論及之耳. (柯琴: 傷寒論注, p.63)

16) 王琦: 傷寒論講解, p.258

## IV. 결 론

『金匱要略』과 『傷寒論』의 相似條文은 각 책의 10.8%, 11.3%를 차지할 만큼 많이 있으며 각 조문을 분석한 결과 높은 상동성을 가지는 조문이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책이 판본적으로 서로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편 중에서 『傷寒論』의 「辨厥陰病脈證并治」편과 『金匱要略』의 「嘔吐噎下利病脈證治」편은 공통적으로 매우 높은 상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風濕相搏證, 麻子仁丸證, 熱入血室證, 太陽病 不可發汗도 『金匱要略』과 『傷寒論』에 중복되어 나타난다. 또한 『金匱要略』의 火邪는 『傷寒論』을, 『傷寒論』의 急下證은 『金匱要略』을 참고하여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이들 相似條文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柯琴：傷寒論翼, in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2. 柯琴：傷寒論注, in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3. 段光周 外：金匱要略手冊,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8.
4. 劉渡舟 主編：傷寒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5. 潘澄濂：略談『傷寒論』與『金匱要略』之關係, 浙江中醫學院學報 8(4) : 13-16
6. 王琦 主編：傷寒論講解, 新鄉,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7. 張啓基 外：傷寒論手冊, 重慶, 科學技術出版社重慶分社, 1984.
8. 張仲景：金匱玉函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9. 최달영：傷寒論釋講, 서울, 대성출판사, 1995.
10. 何任 主編：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 Abstract =

## An analysis on the analogous text of *Shanghanlun* and *Jinguiyaolue*

Yong-Ha Lyeom · Ki-Tae Ha · Dong-Hwan Hyun · Sang-Ju Yoon · June-Ki Kim · Dall-Yeong Choi\*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hanghanlun and Jinguiyaolue* has the analogous text by the rate of 10.8% and 11.3% respectively. And We have found that 63.9% of them are very similar by the analysis on the analogous text. It is supposed that the Books are originated by same source. So we suggest that the analogous tex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the Books.

**Key words** : *Shanghanlun, Jinguiyaolue*, the analogous text

---

\* To whom all correspond should be addressed.

Dep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707 Sukjang dong, Kyoungju City, Kyoung-Buk, Korea. (Zip : 780-714)

Tel : 054-770-2650, Email : cdydkom@dongguk.ac.kr